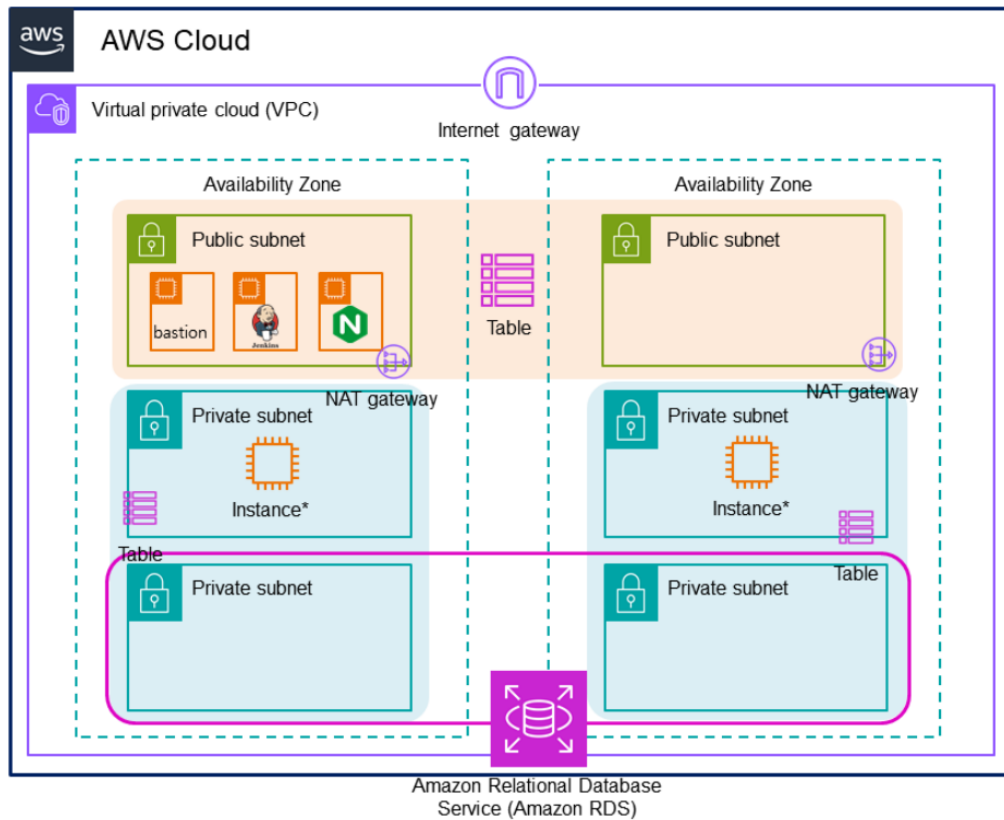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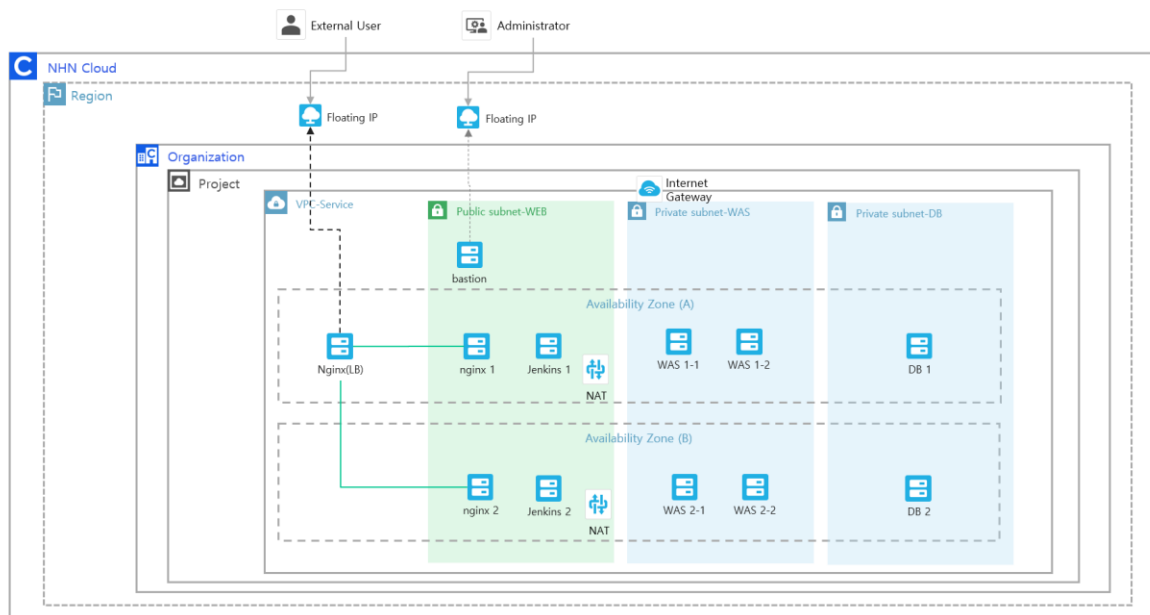


1. AW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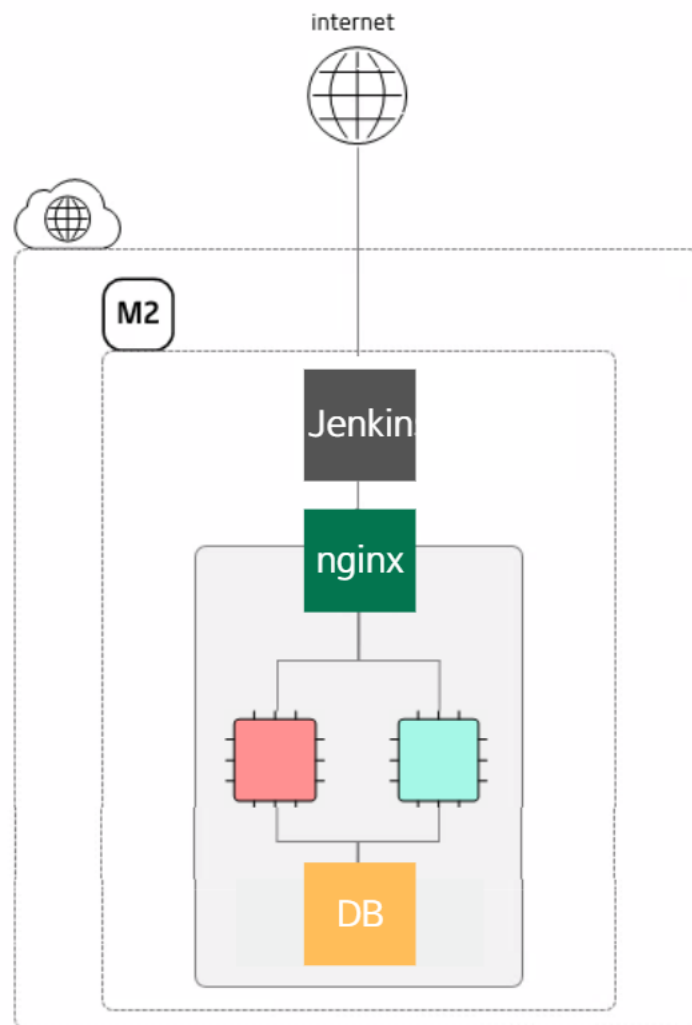
- 두 개의 가용영역을 사용해 자원을 분산 배치
 - > 한 가용 영역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가용 영역에서 서비스 지속 가능
- 다중 서브넷 사용
 - > 네트워크 분리와 보안을 강화하고, 서브넷 간의 트래픽을 관리해 성능 최적화
- Nginx 리버스 프록시
 - > 트래픽 분산, 로드 밸런싱
- 테라폼 사용

2. NHN Cloud



- **두 개의 가용영역을 사용해 자원을 분산 배치**
-> 한 가용 영역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가용 영역에서 서비스 지속 가능
- **다중 서브넷 사용**
-> 네트워크 분리와 보안을 강화하고, 서브넷 간의 트래픽을 관리해 성능 최적화
- **Nginx 리버스 프록시**
-> 트래픽 분산, 로드 밸런싱
- **Load balancer 대신 nginx 사용**
-> nhn cloud의 load balancer는 가용영역을 나누었을 경우, 가용영역 마다 로드밸런서를 배치해줘야하므로 이중화가 안되는 문제 발생, 따라서 로드밸런서 역할을 할 nginx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사용

3. KT Cloud



- **Nginx 리버스 프록시**
 - > 트래픽 분산, 로드 밸런싱
- **하나의 가용영역으로 진행**
 - KT Cloud는 개인용 계정의 경우 하나의 vpc만 생성 가능